

○ 생산법인 ○ 가공센터: PROCESSING CENTER
○ 물류법인: STEEL DISTRIBUTION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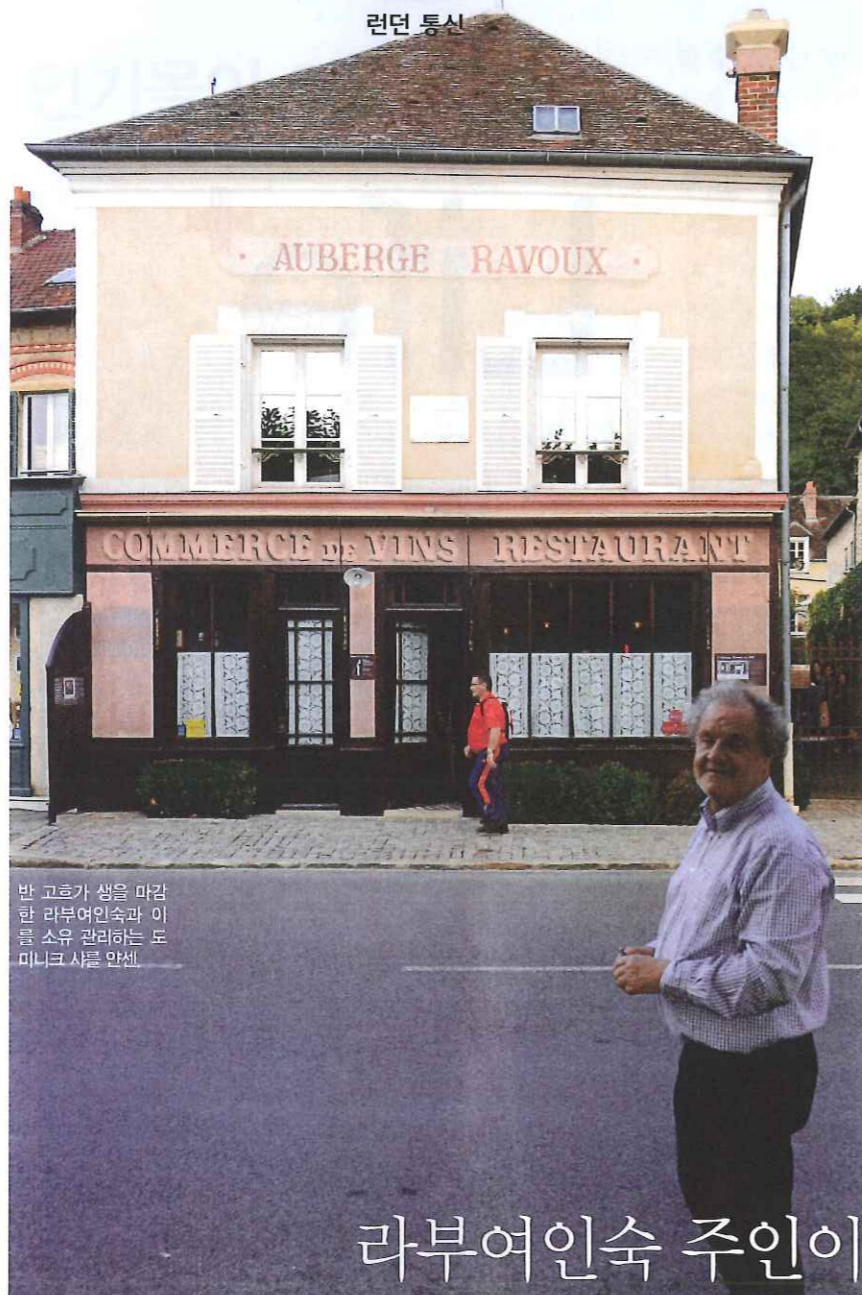
글로벌 자동차사 곁엔 포스코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술력, 엄격한 품질관리,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최적의 서비스까지 수많은 자동차 브랜드들이 포스코의 자동차용 소재로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글로벌 네트워크] ○ 일본, 중국, 인도, 멕시코 등에 가공센터를 운영하며 고객맞춤형 제품을 공급하고 밀착 관리합니다
○ 다수의 물류기지와 테크니컬 서비스 센터를 현지에 설립하여 판매 이후에도 고객이 필요한 기술과 서비스를 즉각 지원합니다

일본病

세계경제로 확산 중



반 고흐가 생을 마감한 라부여인숙과 이를 소유 관리하는 도미니크 샤를 안센.

라부여인숙 주인이 고흐에게 바친 2000억짜리 작품

글·사진 권석하 재영칼럼니스트·'영국인 제발견' 저자 네덜란드 화가 빈센트 반 고흐(1853~1890)를 사람들은 사랑한다. 그의 그림이 마냥 좋아서, 혹은 지난했던 그의 삶이 가슴이 아리도록 애잔해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람까지 모두들 나름대로의 이유로 37세에 자살한 천재화가 좋아한다. 그러나 그 누구도 도미니크 샤를 안센(66·Dominique-Charles

Janssens)의 고흐 사랑을 따라가기는 힘들다. 안센은 프랑스 파리 근교 오베르 쉬르 우아즈(Auvers-sur-Oise)에 위치한, 고흐가 마지막 숨을 내신 '라부여인숙(Auberge Ravoux)'을 소유, 관리하는 벨기에 출신 사업가이다.

그가 고흐와 인연을 맺고 고흐가 사망한 하숙집을 구입한 사연은 많이 알려져 있다. 그는 2015년 고흐 사망 125주기를 맞아 큰

'사고'를 칠 예정이다. 그림이 가장 비싼 화가 중 하나인 고흐의 그림 일부를 개인모금을 통해 모은 1억2000만유로로 구입해서 고흐가 생을 마감한 6.6m(2평)짜리 방에다 걸어 공개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27년간 필사의 노력을 기울여 그 많은 돈을 전세계 고흐 팬들로부터 모았다. 사람들은 그를 '반 고흐 전도사'라고 부른다. 그러나 전도사라고 부른다면 너무 약할 듯하다.

반 고흐 기념관으로 재탄생한 라부여인숙만 보자. 안센이 이곳을 수리하고 1993년 공개를 하기 전까지는 1년에 수천 명 정도가 다녀갔다. 주로 미술학도, 화가, 역사가 혹은 고흐 애호가들이 찾아왔다. 1993년 이후 그 수가 크게 늘었다. 지금까지 200만명이 넘는 사람이 다녀갔다. 지난해에만 40만명이 고흐의 성지를 순례(안센은 순례객이라고 부른다)하러 왔으니 그를 그냥 전도사라고 부른다면 너무 미약한 것 아닌가? 운명 같은 사명감으로 개인의 이해를 초월해 이룬 일이라고 하니 존경하지 않을 수 없다.

그를 다룬 다른 인터뷰 기사는 '안센은 상당히 수줍어하는 타입이라 사진 찍기도 꺼리고 언론에 언급되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다. 내가 만나본 그는 의외로 적극적이었다. 지난 9월 30일, 라부여인숙이 휴관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파리에서 내려와 나를 직접 안내했다. 특별한 대접을 받았다. 한글 안내서도 2년 전에 만들어 비치하고 있었다. 늘어나는 한국인을 정성 들여 맞겠다는 뜻이다. 한국에도 두 번이나 다녀갔다고 한다. 고흐가 마지막 막을 보낸 방에서 안센에게 두 가지를 물었다. 그동안 많이 받았을 법한 질문이다.

- 고흐 방에 의자 하나 빼고는 가구나 장식이 없다. 왜 비워놓았나. "우리 사회의 문제점은 사람들이 모든 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해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질이 해결책이 아니다. 아무것도 없는 고흐의 방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장례식에서 사람들이 관 속에 든 고인을 애도해서가 아니라 자신 때문에 우는 경우처럼 말이다. 가벼운 마음으로 휴가를 왔다가 고흐의 마지막 장소에 아무 생각 없이 들렀더라도, 텅 빈 방과 맞닥뜨리면 잠시나마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 고흐는 삶에 실패해서 자살을 했으나 이제는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인물이다. 그 사람의 일생을 방에서 느끼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삶도 돌아보게 되는 것이다. 빈 공간을 자신만의 생각으로 채울 수 있게 된다. 공간에 가구들을 배치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보느라 자신을 돌아볼 수 없다. 자기의 이야기로 사람들이 방을 채우면 된다. 이 방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비밀과 고흐의 문제를 연결해서 생각하고 삶을 반추하는 기회를 갖게 되기를 바란다. 그것이 빈방으로 둔 이유이다."

이 방은 사람들에게 아주 강한 인상을 주는가 보다. 어떤 사람은 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절도 한다는 글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다.

- 교통사고를 당한 뒤 당신에게 반 고흐가 하나의 숙명이 됐다고 알고 있다. 그전에는 고흐가 당신에서 무엇이었나. "라부여인숙 바로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고 병원에 두 달 입원해 있는 동안 친지로부터 고흐의 서한집을 선물받았다. 고흐가 동생 테오에게 보낸 서한집(한국에서는 '반 고흐, 영혼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다)을 통해 고흐도 한 인간이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인간 모두가 갖고 있는 문제를 고흐도 가지고 있다는 점이 가슴에 깊게 와 닿았다. 나와 고흐와의 연결은 그렇게 시작됐다. 그런 연결은 우리 모두 어떤 형태로든 가지고 있을 것이다. 내가 열 살 때인 1961년 파리에 처음 와서 인상파 미술관에서 나의 첫 카메라로 6장의 사진을 찍었는데 그중 5장이 고흐 그림이었다. 다른 1장은 모네였다. 지금 돌아보면 그때 고흐에 대해 어떤 특별함을 느꼈던 것 같다."

안센이 라부여인숙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건 1985년, 2년 뒤인 1987년 35만7000달러를 주고 라부여인숙을 산다. 그리고는 700만유로를 들여 6년간 대대적인 수리를 한다. 뿐만 아니다. 그 후 다시 1100만유로를 들여 인근 집들을 사들인다. 근처 길 전체를 소유한 셈이다.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 라부여인숙의 분위기가 인근 부동산 소유주들의 난개발 때문에 흐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대수리를 하면서 신경 쓴 라부여인숙 원형 보존은 칭찬을 아무리 해도 부족할 정도이다. 라부여인숙은 고흐가 숨을 거둔 상태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그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음에도 불구하고 곰팡이 냄새가 확 풍겨서

정말 오랫동안 비워 놓았다는 실감이 날 정도이다.

물론 자살한 사람의 방은 세를 놓거나 수리하지 않는다는 프랑스 관습 때문에 고흐 사후 100여년간 사람이 살지 않아서이기도 하지만 수리를 하면서도 완벽하게 보존했기 때문이다. 수리는 주로 건물을 보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한다. 집 안팎 벽에는 수십 톤의 보강재가 투입되었고 건물의 목조 기초 자재에도 좀이 슬거나 썩지 않게 화학처리를 했다. 뿐만 아니라 1년에도 10만명 이상의 인파가 거쳐갈 3층까지의 목조계단은 더 이상 보강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전장치에 만전을 기했다. 이런 보수작업은 쿠파농 뒤 드보아르라는, 중세 때부터 내려오는 프랑스 최고의 장인 전수 기관이 담당했다. 전국의 보수작업 최고 기술자들이 이 역사적인 작업에 참여하고 싶어서 안달을 했다. 이들이 정성을 다해 작업을 했고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안센은 그 성공 여부를 첫날 초대된 동네 할머니의 질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아니 아직 수리를 시작도 안 하셨네요. 언제 시작하는가요?”라는 질문이었다. 항상 봐왔던 동네 사람들도 속을 정도로 원래 모습 그대로 남겨 놓고 건물만 보강하는 조치를 했으니 말이다.

“이 집을 소유하고 나서 특이한 일을 겪은 적은 없나. 특이한 일이 기억에 남아 있지 않다. 이 집은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같이 소유하는 것이다. 100년 뒤, 아니 영원히 이 집이 존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재단을 만드는 중이다.”

“이 집을 관리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한 번의 경우가 아니라 이 집을 방문하고 간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 할 때마다 나도 행복하다. 매일 세계 각지에서 수많은 감사의 편지를 받는다.”

특이한 에피소드를 기대하고 질문을 던졌는데 아주 일반적인 대답이 나왔다. 그런데 이번 것은 조금 달랐다. “가장 어려웠던 점은?”이라고 질문을 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속사포처럼 하소연이 쏟아져 나왔다.

“정치적 문제로 어려웠다. 고흐의 편지를 읽고 나서 그에게 관심이 온통 쏠려 있을 때 우연히 이 집이 매물로 나왔음을 알았다. 그때 이 집은 완전히 동네 싸구려 카페 같았다. 아무도 원하지 않았다. 프랑스 정부는 물론 지방정부를 비롯해 이 마을 누구도 아



반 고흐와 그의 동생 테오의 무덤.

에 관심이 없었다. 당시 프랑스에서 고흐는 특별히 중요한 화가가 아니었다. 그냥 르누아르, 모네와 같은 인상파 화가 중 하나였을 뿐이다. 그러다가 내가 라부여인숙을 인수하고 난 바로 그 해에 ‘해바라기’(1987년 3월 · 3970만달러), ‘아이리스’(1987년 11월 · 5390만달러) 등이 정말 전대미문의 금액으로 팔리면서 고흐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화가가 되어버렸다. 프랑스에서 고흐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그 다음부터 피카소, 세잔, 모네 같은 유명화가들의 그림도 천정부지의 천문학적 가격으로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 동안 관심도 안 쏜던 프랑스 정치인들은 고흐가 숨을 거둔 방이 외국인 소유로 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게 되었다.(더군다나 이 집은 고흐가 옮겨 다니면서 산 4개국 38개 집들 중에서 유일하게 원형대로 남아 있는 집이다.) 이 집을 뺏으려는 프랑스인의 압력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세금조사를 비롯해 무려 17개 프랑스 기관이 온갖 시도를 해왔다.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 나는 그때 유능한 국제회계법인을 고용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아무런 흠을 찾아낼 수 없었다. 심지어 그들은 프랑스 은행들에 압력을 넣어 내게 신규대출을 못하게 했고, 기존 대출까지 회수하게 만들었다. 또 이런 역사문화재로 지정된 건물은 수리에 엄격한 규제를 받는데 규정보다도 몇 배는 더 까다롭게 다루어져 어려움이 컸다. 사람들이 핍박할수록 나는 더욱 더 강해진다. 결국 그들은 목적을 이루지 못했고 그래서 나는 지금 여기 있다. 프랑스에는 문화 관련 일을 하면 손해를 봐야 한다는 믿음이 있다. 손해가 많이 나면 날수록 그 사업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큰 손해를 보면 예술계에서는 모두 축하를 해 준다. 잃어버린 돈만큼 예술적인 가치가 있다는 말이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수록 예술적 가치는 더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예술로 인해 돈을 엄청나게 잃어버리면 최고 훈장인 레지옹 도뇌르를 준다. 어찌되었건 프랑스 정부는 문화에 관계된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한다. 나는 프랑스 정부 지원을 전혀 받지 않는다. 그렇게 해야 나는 그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꿈은 고흐가 오베르에서 그린 그림을 그의 방에 거는 것이다. ‘반 고흐의 꿈(Van Gogh’s Dream)’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그림 구입자금을 모으고 있는데 얼마나 진척이 되었나. “그것은 내 꿈이 아니라 고흐의 꿈이다.(1890년 6월 10일 고흐는 동생 테오에게 ‘언젠가는 어느 카페에서 나만의 전시회를 가질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편지에 썼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전시회는 커녕 생전에 그림 한 점을 팔았을 뿐이다.) 나는 그냥 그의 꿈을 실현시켜 주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고흐 애호가 모두와 마찬가지로 나는 그의 꿈을 이루어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호텔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가장 유명한 것이기도 하고 또 이제는 가장 작은 미술관이 될 것이다. 고흐의 꿈이 실현될 단계에 와 있기 때문이다. 공식적으로 발표는 아직 안 했고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중이라 지금은 그림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11월이면 정식으로 세상에 내놓을 수 있을 것 같다. 고흐가 이곳 오베르에서 그린 그림 70여편(오베르에서 그린 그림에 대한 숫자는 자료마다 달라 정설을 찾을 수가 없다) 중 하나임이 분명하다. 한 점이 될지 두 점이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1억2000만유로가 준비되어 있다. 드디어 고흐의 꿈이 이루어질 참이다. 고흐의 사망 125주년이 되는 내년이면 일반에 드디어 공개할 수 있을 것 같다. 고흐의 ‘5번 방’(반 고흐가 머물던 3층 다락방은 당시 5번 방으로 불렸다. 그 옆방에도 다른 네덜란드 화가가 거주했다) 벽에 그 그림이 걸리는 것을 세계인이 곧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방은 ‘전망이 있는 방(A Room with a View)’이 될 것이고 그 전망이 바로 고흐 그림이다. 겨우 두 평의 방에 그림 한 점으로 정말 세상에서 가장 작은, 그러나 가장 유명한 미술관이 하나 생기는 것이다. 고흐의 꿈이 카페에서 전시회를 갖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해서 죽은 지 125년 만에 그의 꿈이 실현된다. 7년 전 내가 처음 이런 희망을 얘기하면서 캠페인을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나

를 과대망상증 환자라고 말했다. 어떻게 그 비싼 그림을 당신이 맨손으로 살 수 있겠느냐고. 그러나 우리 ‘반 고흐의 꿈’ 팀은 이렇게 결국 해내지 않았느냐!”

‘반 고흐의 꿈’(www.vangoghsdream.org) 팀은 안센이 설립한 반 고흐 연구소(이제 반 고흐 재단으로 바뀐다)의 일부다. 그는 이곳을 통해 모금을 했다. 여기서는 아이패드 앱을 통해 전자책(2파운드49펜스)도 판매하고 ‘반 고흐의 테이블’이라는 고흐의 이야기 및 라부여인숙 레스토랑 요리에 관한 책도 18만권이나 판매하며 모금을 했다. 물론 대부분의 금액은 개인들의 기부인데 5달러짜리 수표부터 엄청난 금액까지 있다. 안센은 아마 고흐가 오베르에서 그린 ‘밀밭’ 그림 12개 중 하나가 돌아올 것 같으면서 웹캠을 통해 벽에 걸어 놓은 그림을 기부자들이 언제나 볼 수 있게 특전을 주겠다고 했다. 벌써 고흐의 방 벽에는 방탄유리로 된 유리장이 그림을 기다리고 있다. 루브르의 ‘모나리자’ 그림을 보호하는 유리장자를 만든 경비회사에 주문 제작한 것이다. 그림이 오지 않은 지금도 그 방 안에서는 누구도 사진을 찍을 수 없다. 방 안 전체의 사진은 보도자료로도 배부하지 않는다. 방 밖에서만, 그것도 방 안 일부를 촬영할 수 있을 뿐이다. 텅 빈 방 중간에 의자 하나만 놓은 것도 바로 안센의 계산된 의도이다. 자살이라는 비극이 깃든 방을 신비스러운 이미지로 더욱 극적으로 만드는 안센의 능력이 돋보인다. 거의 원맨쇼처럼 기금 모금을 진두 지휘해서 연구소 설립 7년 만에 1억2000만유로를 모으는 솜씨는 정말 전직 마케팅 회사 임원 출신 전문가가 아니라면 불가능한 솜씨이다.

고흐에 관한 한 세계 어느 누구보다도 전문가인 안센은 일반인이 잘못 알고 있는 고흐에 대한 이야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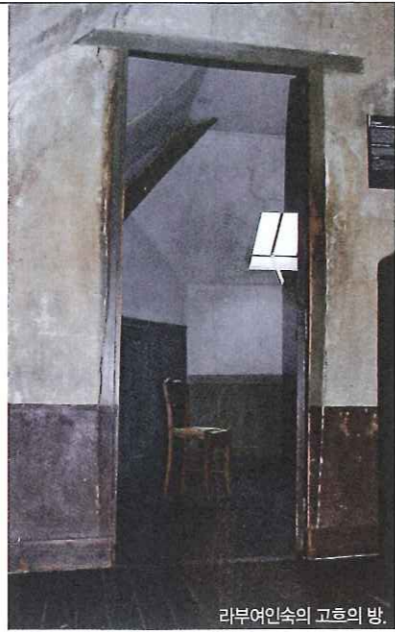
“1956년 빈센트 미넬리 감독의 영화 ‘열정의 랩소디(Lust for Life)’에 묘사된 고흐의 이미지는 엉터리이다. 그 영화는 ‘좋은 화가가 되기 위해서는 가난하고 주정뱅이이고 미쳐야 한다’라고 했다. 그런데 고흐의 편지를 읽어 보면 그는 간질병 같은 수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99%의 시간에는 앞뒤로 딱 막혔다 할 정도로 자신에게 엄격했다. 생각해보라! 그러지 않고는 어떻게 그 짧

은 생애에 그 많은 그림을 그릴 수 있었겠는가? 영화 속 고흐처럼 술 마시고 시간을 보냈다면 말이다.(고흐는 겨우 10년의 작품 활동을 통해 유화 860점, 수채화 147점, 스케치 1030점, 그래픽 10점, 편지 스케치 133점 등 도합 2181점을 그려냈고 동생 테오에게뿐만 아니라 친지들에게 도합 874통의 편

지를 남겼다. 더군다나 오베르에서는 70일 동안 유화만 70여점을 그렸다.) 또 고흐가 동생이 보내주는 돈이 모자라고 화구에 대한 욕심 때문에 빵만 먹다가 굶어 죽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것도 최소한 오베르에서는 사실이 아니다. 그는 테오로부터 매달 지금 돈으로 치면 1500유로를 받아 결코 가난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은 고흐의 그림 '아들린 라부의 초상' 주인공인 여인숙 주인 딸 아들린 라부가, 자신의 유명한 초상화가 그려진 지 66년 뒤인 1956년 행한 고흐에 관한 증언에서도 확인된다. 그녀에 의하면 고흐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다. 카페 손님들과도 잘 어울리지 않고 동료 예술가 하숙생들과만 밥을 먹었다. 그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알코올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다는 뜻이다. 하숙집 딸의 증언에 의하면 고흐는 결코 생활이 어려운 하숙생이 아니었다. 식사를 절대 남기는 법도 없었고 식사시간에 정시에 나타났다. 하숙비도 밀리지 않고 잘 냈다. 평소 누구와 말을 잘 건네는 형도 아니고 밥만 먹고 나면 산책을 나가거나 혼자서 그림을 열심히 그렸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에게 다가와서 초상화를 그리고 싶는데 어떠냐고 물었고 그녀가 좋다고 하자 부모님의 허락을 받으라고 했다. 당시 그녀는 12살이었는데 성숙해 보였는지 테오에게 쓴 편지에는 16살 소녀의 초상화를 그렸다고 썼다. 푸른색 배경에 푸른색 드레스를 입은 소녀의 그림은 고흐 작품 중에도 매우 유명하다. 그러나 자신의 완성된 초상화를 보고 아들린은 상당히 실망했고 아들린의 부모도 좋아하지 않았다. 그들이 고흐의 그림을 이해하기에는 고흐가 시대를 너무 앞서갔기 때문이다.

- 고흐가 가장 힘들었던 점은 세상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이



라부여인숙의 고흐의 방.

아니었을까. “고흐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림 그리는 것밖에는 없었는데 그림을 세상이 인정해주지 않으니 절망적이었을 것이다.(고흐는 한 때 목사가 되기 위해 탄광촌에서 사목을 하기도 했다. 그때도 고흐는 아주 간단한 식사만 고집할 정도로 엄격했다.) 고흐가 그런 세상과 맞서서 살려면 세

상의 무관심을 즐겨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그는 너무 성정이 고왔다. 고흐는 자신의 생명을 값어 그림을 그렸다. 자신의 생애에 뼈와 살을 물감에 갈아 넣어 그림을 그렸다. 그러지 않고는 그 짧은 기간 안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그림을 그릴 수 있었겠는가? 거기다가 그 짧은 기간 동안 네 여인들로부터 받은 실연의 상처를 비롯해 그가 받은 수많은 고통이 더욱 우리를 아프게 한다. 그리고 사랑하게 만든다.”

고흐는 죽음 길마저 편하게 못 갔다. 라부여인숙의 좁은 나무 계단을 밟아 고흐의 삼층 지붕 밑 골방에 들어서면 강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전기 충격 같은 전율을 받는다. 고흐의 흔적이라곤 하나도 찾을 수 없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방에 달랑 의자가 하나 있을 뿐이다. 안센은 라부여인숙 수리에 대한 영감을 얻기 위해 영국 스트랫퍼드의 셰익스피어 하우스를 비롯해 찰스 디킨스, 어니스트 헤밍웨이 기념관 등 세계 각지에 산재한 기념관 200곳에 갔다고 한다.

만일 그 방에 정말 고흐의 그림이 루브르박물관의 '모나리자' 그림처럼 삼엄한 유리상자 안에 들어 있다면 사람들은 그림에 눌러 과연 안센이 원래 의도했던 초라한 공백의 공간 속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대침묵의 순간을 느낄 수 있을까 하는 괜한 걱정이 들었다. 다시 한 번 안센의 실력을 기대해 봐야 할 것 같기도 하다. 라부여인숙을 나오면서 과연 고흐는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세상을 용서하고 죽었을까 하는 상념도 들었다. 그러나 테오가 여동생 라이에게 보낸 편지에서 형 고흐를 '미소를 짓고 죽은 순교자라 해야 한다'고 했다는 사실에 미루어 보면 고흐는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에 세상을 용서했을 것 같기도 했다. ☞